



## 모든 전선을 넘어

©아셰르 인트레이터, 2006년 7월 13일

올해 40세가 된 모니카 레러(Monika Lerer)는 4년 전 아르헨티나를 떠나 이스라엘로 이민 왔다. 오늘 (이스라엘 현지 시각 7월 6일 목요일 오전 9시) 그녀는 북부 예안 마을 나하리아, 5층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 5층 발코니에 앉아 모닝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남부 레바논에서 에스볼라가 카뉘샤 미사일을 쏘고, 그녀는 정면으로 맞아 즉사했다.

지난 주, 아마스는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군대를 습격하고 길라드 샬리트를 납치하며, 민간 인구가 많은 아쉬켈론에 카셈 로켓 미사일을 쏘자마자 지구의 긴장은 더욱 팽팽해졌다. 주목해야 할 점은, 아마스의 공격 수위가 높아진 때에 가짜에는 이스라엘 군사도, 이스라엘 정착민도 전혀 없었다는 것.

대규모 테러단체 에스볼라는 레바논 남부를 점령하고 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이런 으로부터) 탄탄한 재정 지원도 받고 있는 이들은 이번 주, 이스라엘에 먼저 큰 타격을 입었다.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들어와 두 명의 병사(에우드 골드바헤르와 엘다드 레게브)를 납치하고 다른 8명을 살해했으며, 이스라엘에 카뉘샤 미사일을 쏘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만 해도 120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땅에 떨어졌다. 2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사망했으며, 1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점은 에스볼라가 공격하던 시점에 레바논에는 이스라엘 군사도, 정착민도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올메르트 총리는 딱 잘라 말했다. “이건 테러 행위가 아니라 전쟁 도발 행위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마스와 에스볼라의 행동은 안계점을 넘어섰고, 이스라엘은 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독일이 국경을 넘어 독립국 프랑스에 120발의 미사일을

쐐다면, 혹은 북한이 120발의 미사일을 자주 독립국 안국이나 일본에 떨어뜨렸다면 어떨까? 쿠바 군대가 마이애미에 쳐들어가고 미사일을 쐐다면 말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조차 금번 사태는 에스볼라에 책임이 있다는 성명을 오늘 저녁 발표했다.

에스볼라의 지도자 아싼 나쓰랄라는 안도를 넘어섰다. 자신의 입을 과신하고, 이스라엘 국민들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도덕적, 정치적, 안보적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찢겨진 이스라엘은, 연약하고 분열된 듯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존재를 위협 받는 전쟁에 직면하여 궁지에 몰리게 되면, 누구든 조심하는 게 중을 것이다. 이번에 북쪽과 남쪽에 있었던 공격으로 이스라엘은 수년 만에 다시 연합하게 되었다. 좌파와 우파, 군과 민간, 세속적인 사람들과 종교인들 알 것 없이 말이다.

우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렇게 복잡적이고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에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단정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 특별히 많은 민간인들이 무고하게 죽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가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겠다.

1. 테러 단체들(아마스와 에스볼라)의 세력을 무너뜨린다.
2. 테러에 대한 의견들을 재조정한다 □ 인도는 이번 주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뭄바이에서 팍 산 통근 열차를 폭파시켜 충격에 빠졌다. 또한 북한이 핵무장을 꿈꾸며 자신들을 양아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일본은 쇼크를 입었다. 전세계 온건파 무슬림들은 점점 더 테러에서 멀어지고 있다. 누가 계속 테러를 옹호하고 있는가? 아이러니컬하게도, 테러 단체 외에 남은 건 좌파당과 언론인들이다. 그리고 특별히 유럽에서 그렇다.
3. 이슬람 세계에 의사 표현의 자유를 열어준다 □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지금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하라. 이스라엘 군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쟁에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영적인 면이 많이 있다. (렘 6:12 “우리의 씨름은 열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 ) 자연계의 군대도 있지만, 영의 세계에도 있다. (삼아 5:24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 때에 여오와가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신지라” ) 전투의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

번역: 고병연